

造景學科의 當面課題

鄭 瞳 許
(全南大 造景學科)

1. 머리말

조경학이라는 학문은 다른 학문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1865년에 미국의 미시간주립대학에 조경학 강좌가 설치된 것을 시발로 하여, 1901년에는 하버드대학에 독립적인 조경학과가 설치되면서 학문의 기반이 차츰 다져져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10년에 발족한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조경학과의 졸업생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日本에서는 1924년에 東京高等造園學校가 설립되어 최초의 전문적인 조경교육이 실시되었다. 그 후 1944년에는 동경농업전문학교에 녹지공학과가 설치되었고, 1949년에 4년제의 大學으로 승격되면서 녹지학과가 설치되었으며 1956년에 조원학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1973년에야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서 조경학과의 문을 열었으며, 현재는 4년제 대학만 하더라도 16개에 이르고 있다. 1972년 12월에 한국조경학회가 창립되고 조경학과가 새로이 문을 열 때만 하더라도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으며, 다투어 조경학과의 설치를 요청했고 질 좋은 학생들이 모여 들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졸업생 진로의 어두움은 조경학도들을 적지 않은 회의와 갈등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다. 그것은 건설업계의 불황에도 원인이 있겠

지만, 조경업계의 활동 범위가 좁고 다른 건설업계와의 경쟁력이 약하며 행정부문에 진출할 길이 좁을 뿐만 아니라 大學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토면적 99,000 km²에 4,000만 명의 人口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16개의 4년제 조경학과가 설치되어 1년이면 600여 명을 사회로 내보내는데, 이들이 활동할 무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재학중에는 대학 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학문에 도취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뚝뚝하게 걸어가 갈 수 있는 造景人을 양성하는 길은 없을까? 어려운 문제이지만 평소에 느꼈던 몇 가지 생각을 글로 적어 보고자 한다.

2. 有能한 敎員의 확보

아무리 좋은 교육자료를 준비해 놓고 이상적인 교과과정을 편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잘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있는人材를 길러 내기 어렵다. 더군다나 造景學科는 종합적인 학문이라는 성격이 짙어서 文化史, 社會學, 心理學, 생물학, 생태학, 지질학, 토양학, 기상학, 美學, 測量學 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계획, 설계, 토목시공, 식재, 관리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어서 적절

〈표 1〉 한국 조경학과 교원의 학위 소유 현황¹⁾

| 학위 | 전공 | 조경학 | 농학 | 임학 | 원예학 | 농공학 | 토목 | 건축 | 행정학 | 미술 | 농화학 | 생물학 | 도시계획 | 환대자경인 | 계 |
|----|----|-----|----|----|-----|-----|----|----|-----|----|-----|-----|------|-------|----|
| 학사 | 6 | 6 | 10 | 9 | 1 | 2 | 9 | 1 | 1 | 1 | | | | | 46 |
| 석사 | 23 | 4 | 7 | 5 | | 2 | 1 | | 1 | | 1 | 3 | 1 | | 48 |
| 박사 | | | 7 | 5 | | | | | | | 1 | 2 | | | 15 |

한 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계획 분야만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농촌계획, 녹지계획, 경역계획 등 다양하며, 설계에 있어서는 정원설계로부터 식재설계, 시설물(garden furniture)설계, 침경물설계 등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러한 분야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에서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습득해 오지 않고서는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조경인을 양성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교원을 확보해야 하나 길이나 양을 불문하고 구하기가 쉽지 않다.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출신은 적지 않지만 조경공학이나 조경시공 분야의 과목을 담당할 교원을 찾으려면 역시 어렵다. 토목공학과나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서 조경학적인 측면에서 학문을 이수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조경학과를 나온 학생이 반대로 토목이나 건축 분야에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이수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교원을 확보하기는 매우 힘들며, 그러하기 때문에 조경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조경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대부분이 傍系학과出身들로서 스스로 공부하며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 1에서도 읽을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원은 임학, 원예학, 건축, 농학의 학사학위 과정을 거친 사람들로서 전체 교원(46명)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6명의 조경학과出身은 1977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된 그 이후의 새로운 세대로서 대부분이 30대 안팎의 젊은 층이다. 석사학위의 경우는 23 명이라는 많은 수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8명은 海外에서 학위를 취득했고 나머지 15명은 서울대의 환경대학원을 나온 사람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역시 학부에서 임학, 원예, 건축 등의 학과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다.

대학교수는 많은 교과목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과목을 정하여 一生 동안 꾸준한 학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그 분야에 관한 한 명실공히 제 1 인자가 된다는 각오 아래에서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야만 교수로서의 제 1의 기본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며 學生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의과목은 주 전공과목과 성질이 가까운 한두 과목만 맡으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1 학기당 두 과목 정도면 적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현실은 경영당국에 의한 교원수의 제한과 교원 요원의 확보난 등으로 교원수가 한 학과당 많은 대학이면 5 명이고 대부분은 3 명에 지나지 않는다(표 2). 이러한 결과로 교수 1인당 주당 담당 시간은 10 시간을 초과하며 담당 과목수도 3 과목 또는 4 과목에 이르니, 그 교수는 언제 연구하고 또 충실히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계산해 본다면 교수 1인이 주당 이론 4 시간, 실습 3 시간, 계 7 시간 정도를 담당할 경우 연구와 강의, 그리고 학생지도에 적당하리라고 보아 전공과목 약 120 시간을 소화하려면 1 개 학과당 8 명의 교원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강사를 초빙하여 메꾸는 정도로서 3, 4 명의 전임교원으로 학과를 유지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1) 韓國造景學會誌, 제13권 제 2 호(1985.12), pp. 133~144의 “大學院, 大學 및 專門大學 現況”에 의거함.

〈표 2〉 造景學科 교원의 主專 攻과목

| 대학별 | 전공과목 | 造景史 | 造景植木 | 造景配植 | 植栽환경 | 造景美學 | 造景設計 | 造景計劃 | 도시 지역 및 계획 | 환경계획 | 조경 및 施工學 | 조경관리 | 계 | 박사학위 소유자 수 |
|------|------|-----|------|------|------|------|------|------|------------|------|----------|------|----|------------|
| 경북대 | | | 1 | | | | 1 | 1 | | | 1 | | 4 | |
| 경희대 | | | | 1 | | | 1 | 1 | | | | | 3 | 2 |
| 동국대 | | | 1 | | 1 | | | 1 | | | | | 3 | |
| 동아대 | | | | 1 | | | | 1 | | | | 1 | 3 | |
| 목포대 | | | 1 | | | | 1 | 1 | | | 1 | | 4 | 1 |
| 서울대 | | | | | | 1 | 1 | 1 | 1 | 1 | | | 5 | 3 |
| 성균관대 | | | 1 | | | | 1 | 1 | | | | | 3 | 2 |
| 시립대 | | | 1 | | | | 1 | 1 | | | | | 3 | 1 |
| 영남대 | | | 1 | | | | 2 | 1 | 1 | | | | 5 | |
| 전남대 | 1 | | | 1 | | | | 1 | | | | | 3 | 2 |
| 전북대 | | | | 1 | | | 1 | | | | | | 2 | 1 |
| 청주대 | | | | 1 | | | 1 | 1 | | | 1 | | 4 | 1 |
| 호성여대 | | | | | | | 2 | 1 | 1 | | | | 4 | |
| 계 | | 1 | 6 | 5 | 1 | 1 | 12 | 12 | 3 | 1 | 3 | 1 | 46 | 13 |

※ 한국조경학회지, 제13권 제2호(1985.12), pp.135~142, “大學院, 大學 및 專門大學 現況”.

모든 여건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원의 확보이다. 그 해결방법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國內外의 大學院에서 研修하게 하는 것이다. 國內의 16개 조경학과에 있어서 1개 학과당 평균 4명의 교원을 보충해야 한다면 60명은 더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교부 당국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의 신설을 무조건 억제할 것이 아니라 교원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에 이르면 설치를 허가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 교원은 외부에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造景學科의 설립인가를 해 놓고 교원 확보책을 강구해 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된다. 실력 없는 졸업생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덧붙이고 싶은 것은 조경학과가 기술

인 양성에 본뜻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초학문이 약해서는 발전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디자인이론이나 식재환경, 심리학, 사회학, 토목재료 등과 같은 기초과목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필요성이 인식되어져야 할 줄로 안다.

3. 進路에 연결되는 敎育

1973년 한국에 처음으로 造景學科가 설치된 이래 14년 동안에 4년제 대학만 하더라도 16개에 이르고 있다. 1985년도말 현재 충청남도 와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 道에 설치되고 있으며 대구직할시에서는 3개에 이르고 있다. 人口비율로는 세계 제1인 듯 싶다. 이웃나라인 日本의 경우를 보면 국립 종합대학에는 조경학과가 설립되고 있는 곳은 없는 듯하며 千葉大學과 동경농업대학 그리고 南九州대학에 조경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大阪예술대학에 환경계획학과, 千葉大學에 환경녹지학과가 설치되어 있

을 뿐이며, 기타는 대부분 임학과, 농학과, 원예학과 등에 조경학 강좌가 설치되고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보수적인 경향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지만 少數 敬業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방향은 결국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어 졸업 후의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장점도 있다. 美國은 조경가협회(ASLA)가 인정하고 있는 조경학과가 4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國土가 넓고 생활수준이 높아 우리나라만큼 졸업 후의 진트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의 대학은 우리의 경우보다 강의와 Studio에 있어서 實社會와의 연결을 고려하여 보다 알차고 밀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1970년대에 조경학이라는 학문이 빛을 보기 시작하였으나 지난 14년간을 되돌아 볼 때 막연히 人氣學科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대학에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은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증대되는 졸업생의 취업문제도 갈수록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있다. 조경학이라는 학문은 이론보다는 기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습득한 '造景技術'이 實社會에 기여할 수 없다면 국가나 대학 자체에서도 책임이 크지 않을 수 없으며 本人에게도 不幸이 아닐 수 없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경기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되는 숫자는 졸업생수의 약 20~30%라고 보는데 이들마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선 대학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미시간大學에 있는 '도시계획 및 조경학과'의 안내책자에는 조경의 정의와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²⁾

“조경기술이란 대중의 보건이나 安全·복지를 위하여 토지의 분석과 설계(design), 관리에 과학적인 기초를 응용하는 기술을 취급하는 직업이다. 조경의 實務는 가장 적절한 人間の 이용과 위락을 위한 物的 환경을 개량하고 유지해 가기 위하여 自然이나 社會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 창조

적인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성실한 탐구심을 요구한다.”

“졸업 후는 설계사무소, 토지개발회사, 公共계획기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 있어서 건축가나 土木家, 생태학자, 플랜너(planner) 등과 협조하면서 자원 해석이나 단지개발 계획, 土地利用계획 등 피지컬한 계획을 행한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결국 조경학을 이수한다는 것은 각종 피지컬한 계획의 수립과 설계·관리업에 종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관련된 각 분야의 광범위한 이론적인 기초 위에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지만 미시간대학에서는 계획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대학원이나 기타 학부과정의 각 조경학과에서도 계획 및 설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13개 조경학과와 46명 교수 중 설계 및 계획 분야를 主攻으로 하고 있는 교수가 28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2).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계 및 계획 분야만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실사회에 나가게 되면 시공 및 관리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配石, 配植과 植栽, 池塘 만들기, 시공 후의 관리, 植物의 病虫 및 越冬관리 등을 배우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가 않는다. 造景업체에서 일하거나 自營한다고 할 때 이 분야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특히 自營할 경우에는 결실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도 이 분야에 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졸업 후에는 곧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이론과 반복된 실습을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조경학과 교원들의 主 전공 분야를 본다면 표 2에서와 같이 토목시공 및 관리 분야는 겨우 4명으로서 전체 교수의 9%에 지나지 않으며 배석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겨우 20%이다. 물론 교수들은 主 전공과목 외에도 다른 몇 개의 과목을 맡고 있겠지만 主 전공과목만큼 자신 있게 그리고 성의 있게 지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2)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4~75, Academic Programmes, M.S.U., 1974.

조경학과 학생들이 造景家로서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고 또 다른 分野인 토목·건축업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설계, 계획, 시공, 관리 등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深度 있는 기초이론과 실기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와 같은 현대적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 능력의 향상에 관한 연구와 시대적인 요청을 신속히 파악하여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방향의 개발 등은 조경교육자가 맡아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4. 行政的인 측면에서의 進路 모색

일본농업대학 조경학과와 「造園學科 案内」를 보면³⁾ 1972년부터 1979년까지의 업종별 취업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 취업한 졸업생은 8.4%이며, 민간관계의 조경업체에는 36%, 교원, 진학, 연구소와 시험장 그리고 海外 연수 등이 3.8%, 그리고 기타(자영 또는 미계출자)는 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 취업된 자는 44%로서 1,344명에 이르며 공공기관만으로는 253명이다. 동경농업대학은 사립대학인데 무척 많은 졸업생이 취업되고 있는 것을 본다.

우리는 조경학과를 지원해 오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에 이러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고 소개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길이 없거나 막혀 있다. 특히 행정기관만 하더라도 綠地, 도시, 건설, 관광, 새마을, 문화재 등의 부서에서 능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現行法上 들어갈 방도가 없다. 이것은 조경학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부 자체에서 볼 때도 조경 분야에 관한 한 비능률적이며 업무수행상 시행착오를 벗어나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도로조경은 임업 공무원이 맡기 어려우며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의 계획을 토목이나 건축 분야의 기술자들이 해내기 힘들 것이다. 문화재 지역의 조경 설계는 또 누가 맡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 분야에 있어서는 技術考試도 없고 일반 공무원의 채용 대상에도 끼지 못한다. 정부 당국에서는 造景人들이 제자리를 찾아 國土美化와 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되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줄로 안다.

하나의 예로서 건축물 준공검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준공검사의 한 조건으로서 건축법상 조경식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두고 있는 것은 보다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조경의 이론과 거리가 먼 식재를 하고도 검사에 합격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본다. 식재의 良否를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조경교육을 받은 자라야만 하는 것인데 문외한이 검사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것이 바로 조경 분야의 행정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문교부에 관련된 사항이다. 조경학이란 인간 생활에 있어 한시라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옥외의 생활공간에 관련을 가지고 있다. 주거의 정원에서부터 학교 정원, 어린이 놀이터, 도시공원, 유원지, 자연공원, 공업지대의 완충 녹지대에 이르기까지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고등학교나 직업학교에 '조경과'가 설치된 곳이 없다. 다만 임업과나 원예과 또는 건축과 등에서 하나 또는 몇 과목의 조경 관련 과목만 설강되어 있을 뿐이다. 조경학은 인간성 회복과 갈등 해소, 그리고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필요한 학문이며, 조경식재, 시설물 관리, 휴식 및 유원지 조성, 관광지 개발, 자연 및 문화경관의 보호 관리 등 할 일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적어도 1개 도에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조경과를 시험삼아 설치해 볼 일이다. 아울러 대학에서는 이 분야에 관련된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조경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의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5. 맺는 말

1970년대에 이르러 조경학과가 이 나라에 터

3) 東京農業大學 造園學科, 造園學科 案内, 1980.

를 잡게 된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었다. 지난 14년간의 조경학의 역사가 비록 짧기는 하지만 그동안 넓게는 國土에, 좁게는 도시 공간과 주거 공간에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人崗의 快適한 환경 조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國土의 自然美가 보존되고 修景되고 있으며, 도시의 생활공간이 보다 아름답고 더욱 포근하게 가꾸어져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造景學科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 그 수를 더하고 있고 졸업생 수도 수백 명에 달하고 있지만 그들이 조경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行政당국의 문호 개방과 대학 자체에 의한 진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行政的인 면에서는 造景學科 出身이 국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고시제도를 둘 것이며 각급 공무원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것이다. 실업고등학교에 조경학과를 설치하고 일반 중·고등학교에 國土의 自然美 보전과 거주 환경의 개선에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토록 하여 인간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조

경학과 학생에게 조경 분야의 교직에 설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었으면 한다.

한편 학교 당국에 있어서도 충실한 교육을 통하여 능력 있는 조경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교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영할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하여 설계 및 계획 분야와 더불어 시공·관리 면에도 관심을 가져 폭 넓고 심도 있게 지도하여 어떠한 직종에 부딪치더라도 곧 잘 적응할 수 있는 조경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교수들은 끊임없는 연구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학계와 사회를 주도하고 시대의 변천과 요청에 민감하여 즉각 교육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조경학과와 설치에 의미를 부과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학과를 신설하고 造景家를 양성하는 것은 졸업장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여 인류 복지의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